

이해찬(전 국무총리) 1차 구술

1. 구술자: 이해찬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11월 29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광장
6. 구술분량: 02분 4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92년 대선 당시 ‘물결유세단’ 활동에 관한 일화

구술자 : 구십이(92)년 선거¹⁾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전망은 안 좋아, 전망은 안 좋는데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대중정치 정당이 대선을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치러내는데, 하여튼 전망은 안 좋는데 전망이 안 좋다는 말도 할 수도 없이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근데 그때 겨울에 선거를 치르니까 이 ‘파랑새 유세단’²⁾이란 걸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민석하고. 저는 당무기획실장이니까 현장은 많이 못나갔는데 파랑새 유세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청년 유세단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 주로 연사를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주로 많이 하고 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죠, 이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비용을 당에서 대주는데 처음에는 그게 큰 호응이 없을 줄 알고 당에서 돈을 잘 안줬어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반응이 좋거든요. 효과가 좋으니까 김 대통령이 더 확대하라고 (추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뭐 자원봉사단 자체가 잘 모아지지 않고 선거날 짜는 얼마 안 남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못썼어. (그렇게) 끝났어. 선거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다 정산을 해서 어디다 얼마를 썼다는 계산서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김 대통령한테 갖다 드렸어요. ‘돈이 너무 늦게 나와서 다 못써서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더니 김 대통령이 떨어졌는데(웃음), 떨어졌는데 심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뒷정리하라는 뜻으로 돈을 갖다 드린 거거든요. 근

1) 14대 대통령선거를 말함.

2) 당시 민주당 선대위 산하 ‘물결유세단’을 말함. 구술자가 말하는 ‘파랑새 유세단’은 1997년 15대 대선에서 국민회의 선대위가 운영했던 수도권특별유세단이었음. 이때도 노무현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는 부산경남선대위 공동의장, 파랑새유세단 단장을 맡으며 김대중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음. 14대, 15대 대선 지원활동을 혼동한 구술자의 착오로 보임.

데 이 양반이 ‘선거 끝나고 돈 갖고 오는 사람도 있느냐’ 고(웃음) 그러면서 자원봉사한 사람들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라고 그 중에 삼천(3,000)만 원을 돌려주더구만요. 그게 이제 김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저하고 맺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하자면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저 사람들이 정치를 정직하게 하는 구나, 그러구 돈 같은 거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김 대통령이 저를 만나면은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농담처럼. ‘이 사람들 순진하기 짝이 없네. 그런 돈을 다 돌려 갖고 오다니’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그 후에도,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농담으로 하시고 그러셨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 1952. 충남 청양 출생
- 1971.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 1974. - 197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
- 1979. 돌베개출판사 설립(대표)
- 1980. - 1982.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1985.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대변인, 정책실차장, 총무국장
- 1987.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의원
- 1988.05 제13대 국회의원(평민당, 서울 관악을)
- 1988. 국회 광주민주화운동특별위원회 간사
- 1988. 평민당 원내부총무
- 1991. 신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1992.05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관악을)
- 1993. - 1994. 민주개혁정치모임 이사
- 1995.07 - 1995.12 서울시 정무부시장
- 1996. 국민회의 총선거획단 단장
- 1996.05 제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관악을)
- 1996.05 - 1997.05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1997.07 - 1997.12 새정치국민회의 대선기획본부 부분부장
 1997.12 - 1998.02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분과위 간사
 1998.03 - 1999.05 제38대 교육부 장관
 2000.04 - 2000.12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0.05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을)
 2000.12 - 2001.03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1.03 - 2001.09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2002.05 - 2002.06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상임 선대본부장
 새천년민주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02.09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본부장
 2003.10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창당기획단장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관악을)
 2004.06 - 2006.03 제36대 국무총리
 2006.10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
 2007.09 - 2007.10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2009. 시민주권 상임대표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2.05 -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세종특별자치시)
 2012.06 - 민주통합당 당대표(2012년 현재)

제13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위에서 활약했다. 3당 합당 이후 신민당과 통합한 민주당에 함께 있었으나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으로 다시 당적이 갈렸다. 노 대통령이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로 입당한 이후에는 줄곧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노 대통령이 1998년 종로 재보선을 통해 10년 만에 재선의원이 되고 교육위를 맡을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상임위에서 만나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때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